



‘흑산 홍어’ 명성 흔들린다



10일 오전 신안군 수협 흑산도위판장에 인근 바다에서 잡아들인 홍어가 바닥에 가득하다.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은 흑산 홍어는 최근 들어 어획량 1위의 자리를 군산에 넘겨준 상태이다. 흑산 홍어는 암컷 최상품(8kg 이상) 마리당 가격이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흑산도=김진수 기자 jeans@

총허용어획량규제 전남 있고 전북엔 없어 신안 오기 전 군산서 남획
홍어 어획량 1위 군산에 내줘 ... 어획량 제한 서해안 전역 확대해야

키조개·참조기 등도 민원 잇따라

수백년 동안 ‘흑산 홍어’는 ‘영광 굴비’와 함께 생산지와 어종이 결합된 고유 명사였다. 이 같은 홍어 주산지 흑산도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흑산도가 홍어 어획량 1위 자리를 군산에 내주었기 때문이다.

홍어(참홍어) 주산지인 신안 흑산도에서 군산으로 바뀌고 있다. 국산인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규제를 받는 서해안 지정해역에서 전북과 충남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회유 어종인 참홍어가 전북·충남에서 남획되면서 ‘흑산 홍어’의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감소, 그 명성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TAC 대상인 전남도 해역의 키조개·개조개·오징어·참조기에 대한 규제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참홍어 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어획량을 과도하게 제한해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TAC 제도 개선

을 해양수산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참홍어다. 현재 참홍어의 TAC 대상해역은 2016년 흑산도 근해와 인천해역으로 지정돼 서해안 전역에서 전북·충남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서해안 전역에 참홍어가 서식·분포하고 있는 만큼 전남의 흑산도부터 전북 군산, 충남, 경기, 인천해역 등까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남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남의 참홍어 생산량은 663t으로 전체(1287t)의 51.5%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1004t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3121t)의 32.2%로 비중이 급감했다. 2019년 224t(17.4%)에 불과했던 전북의 생산량이 2021년 1417t(45.4%)으로 전남보다 40% 이상 많은 정도로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다. 생산량에서 전북이 전남을 앞선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2019년 홍어 생산량은 전남이 989t, 전북이 637t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참홍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자

원 특성을 고려해 TAC 지정해역을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산란 시기 몸집도 불고 영양이 풍부한 상태로 신안 흑산도 해역으로 오는 참홍어가 전북 군산에서 먼저 잡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흑산 홍어잡이 어선은 17척으로 늘었지만, 사실상 7척이 조업하고 있다. 요즘 적당 일주일 조업에 최대 500마리까지 잡는다. 9일 오전 7시 흑산 수협 위판장에서는 한성호 등이 참홍어를 위판했다.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높은 암컷 8kg 마리당 40만원 선에서 형성됐다.

신안수협 흑산지점 관계자는 “본격적인 홍어 조업 철을 맞았는데 어획량이 줄었다”며 “가격이 오른 것은 잡히는 양이 적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흑산도 홍어를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해 QR코드를 찍으면 신안군 홈페이지로 연결돼 홍어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2020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도 지정됐으며, 신안군과 신안군 관광협회 흑산면지회·신안군수협 등은 2020년부터 ‘홍어찜기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흑산 홍어의 명성이 계속 유지돼야 가능한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

조르주 루오 지상展

전남도립미술관 2023년 1월까지 전시

‘듀오, 두 형제’

루오는 자신의 슬픔과 상처, 감정을 숨긴 채 타인에게 웃음을 쥐여 하는 광대의 비극적인 삶을 사회적 약자로 대변했다. 어찌면 삭막한 사회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광대의 삶과 닮아있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루오 작품 속의 광대는 따뜻한 색을 사용하여 한결 당당하고 밝아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1948년경에 제작된 ‘두 형제’는 소외되고 상처받은 존재들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바라보는 루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장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듀오, 두 형제’, 1948년경, 유채, 65.5 x 42.5cm, 품피두 센터 소장

KDI, 내년 성장률 전망 1.8%로 낮춰

물가 상승률 2.2%→3.2%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를 반영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KDI는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KDI가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3%에서 0.5%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최근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전망치 중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1.7%)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9%) 등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국제기구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제시했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0년(-1.6%) 등을 제외하고 기록한 적이 없다.

국책연구원의 1%대 전망은 한국경제가 맞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1%로 제시한 바 있는데 향후 이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키우던 풍산개 우치동물원 오나 ▶2면

광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가 보니... ▶6면

순흥민 ‘마스크 쓰고라도 월드컵 뒤통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